



고 1·2 교사의 진학상담 및 지도 방법

...

1. 진학상담을 위한 자료 준비와
상담프로그램 활용
2.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방법 및 상담 사례

VII 고 1·2 교사의 진학상담 및 지도 방법

1 진학상담을 위한 자료 준비와 상담프로그램 활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적용 : 현 고1, 고2의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학년이다. 교육과정이 크게 변하면서 고1, 고2의 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또한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해졌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1때부터 진로와 진학에 대한 3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필요한 정보 선별하기 :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고 아주 많다. 정보가 넘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개인의 진로 및 적성에 관한정보, 대학의 전공정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 등이 꼭 필요한 정보이다. 일반화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개별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맞추어 준비한 정보들을 설득력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적인 상담 전략 : 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학생이다. 진로 의식이 투철한 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담이 편하다. 하지만 정말 진로의식이 없는 학생은 상담하기 답답하다. 학생들은 보통 보기가 있는 경우에는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위를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하면 된다. 진로적성검사 → 직업 탐색 → 대학 및 학과탐색 → 교육과정 설계 →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목표설정의 단계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

가. 학생의 흥미와 적성 파악하기 (1단계)

- 진로적성검사진로 결과지 준비하기 : 상담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시작하기이다. 다짜고 짜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나 학과를 물어보기도 이상할 뿐더러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또한 학생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대중매체에 나온 직업을 동경하거나 부모님의 꿈을 자신의 꿈인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생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 꿈을 구체화 시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년초 실시하는 적성검사 결과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활용하기 : 학년초 진로적성검사를 보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 경우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를 적극 활용하면 무료로 학생들의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심리검사를 받아 볼 수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다양한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검사 결과지가 학생별로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첫화면 ■



Quick Link 메뉴의 진로심리검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사 메뉴로 넘어갑니다. (화살표 표시)

- 진로종합검사 보고서 : 진로심리검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진로종합검사와, 진로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온다. 진로종합검사의 경우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실시하는 성격유형검사, 직업흥미검사, 다중지능검사, 직업가치관검사가 있다. 4개의 검사를 모두 수행하면 개인별 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보고서에는 각 검사별로 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학생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잘 보여주며, 이들 적성의 4요인(성격, 능력, 흥미, 가치관)들의 내적 일치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생의 적성을 중심으로 고려해 볼만한 관심직업 3개를 추천해 주는 등 구체적인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Ⅱ 진로검사 종합 결과 보고서 예시 Ⅱ

진로적성 검사 결과 분석

성격요인	사교형	외향적인 행동양식과 감성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사교형입니다. 활동적이고 정서표현이 많으며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동시에 감성적이고 사람 중심의 판단을 하기때문에 사람들과 서로 감성적인 교류를 하면서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분야에 잘 어울리는 성격입니다.
능력요인	자연친화 지능 공간적 지능	1순위 자연친화 지능, 2순위 공간적 지능입니다. 동식물, 인체, 환경 등 자연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요하는 직업들에 있어 성취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공간적 아이디어를 요하거나 시각적 표현력을 요하는 직업들에 있어 성취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흥미요인	실재형 진취형	1순위 실재형, 2순위 진취형입니다. 신체활동이나 기계, 혹은 도구를 활용하는 조작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솔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타인을 선도하고 그 결과로 인정과 결실이 얻어지는 직업에 흥미를 보이게 됩니다.
가치관요인	종교형 사회봉사형	1순위 종교형, 2순위 사회봉사형입니다. 직업생활을 통해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성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혹은 직업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받고 헌신하고자 하는 가치관을 성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내적 가치관	1순위 가치관 요인인 종교형은 내적가치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격, 사랑, 우정, 건강, 즐거움, 보람, 예술, 지혜, 신앙 등 내면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중요시 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진로적성 검사 결과 종합해석

내적 직업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직업선택에 있어 겉으로 보여지는 성취도 보다는 자신의 성격과 흥미에 맞는 즉 내적 요인과의 부합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의 4요인을 해석할 때에 주로 성격이나 흥미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적성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격, 흥미 및 가치관 적성을 중심으로 고려할때 진로진학정보센터 학생에게 추천 되는 직종은 MD,스포츠의학전문가,항공선박정비원 등 입니다.

- 적성에 맞는 추천 직업과 추천학과 : 추천된 3가지 직종에 대한 직업 개요와 업무 특성이 소개되며, 직업 적성에 맞는 추천학과와 학과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학년별로 학업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계획표가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진로 로드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Ⅱ 적성에 맞는 추천 직업 3가지

직업 개요

스타일리스트	의류의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스페셜리스트이며, 기업에서는 상품기획과 자사의 정책을 기초로 한 내용에 따라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방향을 알려주고, 디자이너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재조정하여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의 라인을 구체적으로 구성한다. 패션, 광고, 사진 분야 및 연극, 영화, TV에서 의상을 담당한다. 패션 쇼의 연출자로 모델의 의상의 스타일링을 담당하기도 한다.
스포츠의학전문가	의료진의 검진결과에 따라 개인의 신체조건과 건강상태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지도하는 전문가이다.
호텔리어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원만한 호텔업무가 운용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호텔 내의 부서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게 된다.

업무 특성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는 적응성/융통성과 혁신적인 성격이 요구되며,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창의력과 타인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능력이 요구되며 시물관리 및 협상능력이 요구된다.
스포츠의학전문가	개인의 체질이나 병에 따라 각기 다른 운동을 처방해 주어야 하므로 인체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물론 운동생리학, 해부학, 재활의학, 생리학 등 관련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운동을 시키려면 자신이 운동을 좋아해야 하고 어느 정도 운동능력이 필요하다.
호텔리어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나를 신속하게 찾아내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므로 상냥하고 원만한 성격이 필요하다.

나. 관심 대학과 학과 탐색 (2단계)

- 진로·진학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학 로드맵을 작성할 때 큰 문제를 가져온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대학과 학과를 검색할 수 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메뉴>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정보](#)
[진로검사](#)
[대학진학정보](#)
[고교진학정보](#)
[진로진학상담](#)
[진학상담프로그램](#)

학과정보

HOME >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 학과정보

대학진학정보

대학 공개 수시 전형 합격 사례

대학/학과정보

대학정보

학과정보

대학별 전공 안내

학과정보

전공계열

☒ 전체
 ☒ 공학계열
 ☒ 인문계열
 ☒ 사회계열
 ☒ 교육계열

☒ 자연계열
 ☒ 의약계열
 ☒ 예체능계열

- 학과정보 사용하기 : 학과정보를 클릭하면 다양한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자신에 맞는 학과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학과명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대략의 계열만 알고 있다면 계열의 모든 학과가 검색이 되어 학과명을 알 수 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 학과정보 메뉴> |

학과정보

전공계열

전공계열

☐ 전체
 ☐ 공학계열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사회계열
 ☐ 의약계열
 ☒ 교육계열
 ☐ 예체능계열

학교유형

☒ 전체
 ☒ 대학
 ☒ 전문대학

총 38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0개씩보기

가정교육과

교육계열

- 관련학과: 가정교육과, 기술 ·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교육계열

- 관련학과: 과학교육계열, 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심화과정), 과학교육과(심화전공), 과학교육학부, 뇌교육융합학과

교육공학과

교육계열

- 목표 대학과 학과 정하기 : 검색을 통하여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학과 개요, 관련 직업, 관련 자격증, 수강과목 등이 잘 설명되어져 있다. 또한 선택한 학과가 개설되어있는 대학교도 알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학과의 소개 내용을 확인하고 1단계에서 찾은 자신의 직업적성과 관련 직업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과에 대한 정보 탐색이 끝난다면 개설대학을 확인하여 목표 대학과 학과를 정할 수 있다.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 학과정보 - 학과선택 화면> ■

<div>  <div> 가정교육과 교육계열 </div> </div>			
취업률	40 % 이상	졸업 후 처음 임금	130 만원 이상
학과개요	개설대학	학과전망	이 학과를 보는 회원특성

■ 세부관련학과

가정교육과, 기술 · 가정교육과

■ 학과개요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아동학, 가정관리학, 의류학, 식품학, 영양학, 주거학, 교과교육 분야로 나누어지고 생활의 과학화 및 생활 개선을 목표로 여러 기초 과학의 원리를 응용하고 통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정교육과는 학문과 인성을 두루 갖추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정과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직업

교장, 자연계중등학교교사, 장학사, 심리상담사

■ 관련자격

가정복지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평생교육사

■ 졸업 후 진출분야

■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

▫ 가정교육론

가정과 교육의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어 가정과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웁니다.

▫ 가정과교수법

가정과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수-학습 이론을 다루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합니다.

▫ 가정교육 평가

가정과 수업과 학생 평가의 의의와 다양한 방법을 배웁니다.

- 대학자료 활용하기 : 대학과 학과까지 선택한 후 대학의 전공가이드 북을 검색해 볼 수 있다. 학과명이 같으면 보통 유사한 것을 배우게 되지만 대학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고 싶다면 대학에서 발행한 전공가이드북을 통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최신 전공가이드북을 모아놓았으니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 대학별 전공 안내> ■

대학진학정보		대학별 전공 안내	
대학 공개 수시 전형 합격 사례			
대학/학과정보		10개씩	
대학정보			
학과정보			
대학별 전공 안내			
설명회/연수 강의자료			
수시전형 자료			
정시전형 자료			
수능/학력평가			
대학별 고사			
고 1·2 대입자료			
매거진/보도자료			
번호	제목	작성일 ▲	조회 ▲
54	KC대학교 전공가이드북	2020.02.12	184
53	건국대 전공가이드북	2020.02.12	546
52	경희대 전공가이드북	2020.02.12	489
51	고려대 전공가이드북	2020.02.12	658
50	국민대 전공가이드북	2020.02.12	240
49	동국대(서울) 전공가이드북	2020.02.12	224
48	삼육대 전공가이드북	2020.02.12	162

다. 교육과정 설계 (3단계)

-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면 실시 : 올해로 모든 고등학생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기존의 인문·자연계열과 같은 획일적 교육과정 대신에 학생 개개인의 진로 목표에 따라 스스로 수업 받을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과목을 자신의 책임 아래 선택하여 수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희망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전공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종합전형 :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이 무엇인지, 성취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통해 학생이 지닌 학업 능력의 우수성과 전공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진로 목표에 맞추어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도해 주어야 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 과목 선택의 시작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학생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 공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가 탑재되어있다. 안내서에는 고등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전체과목의 설명이 담겨져 있다.

■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www.jinhak.or.kr) 첫화면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 대학별 전공 안내> ■

Quick Link 메뉴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PDF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공 학과 관련 고등학교 선택과목 :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후반부에는 대학에 개설된 학과들에 대한 설명, 학과의 주요 교과목, 학과관련정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택과목들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고고학과 예시) ■

고고학과

인류가 남겨 놓은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분석하여 과거의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 변동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인류학이나 역사학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통계학, 지질학, 동·식물학 등 자연과학과도 관련성이 있다.

□ 주요 전공 교과목

교양교과	고고학개론, 문명의 기원, 인류문화의 기원 등
전공탐색교과	고고학연구의 기초 등
전공교과	고고학사, 문화유산관리와 박물관, 인류문화와 환경, 고고학방법론 등

□ 이런 학생에게 권한다

- 역사에 관심이 많고,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
- 인간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며, 인류와 사회의 발달 과정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학생
- 사료와 사료 사이의 여러 상황을 생각하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논리력을 갖춘 학생

□ 관련 정보

항 목	내 용
유사 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문화인류고고학과, 역사고고학과, 융합고고학과 등
개설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울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 • 지방(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졸업 후 진로	<p>연구소(인문사회과학 관련 국가·민간 연구소, 문화재 관련 연구소 등) 정부 및 공공기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서실, 국공립 및 국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지역 문화원 학예사 등 전문직 진출) 기업체(출판사, 초·중·고 및 대학 도서관, 기업 문헌 자료실, 기업체 사무직 등) 언론사(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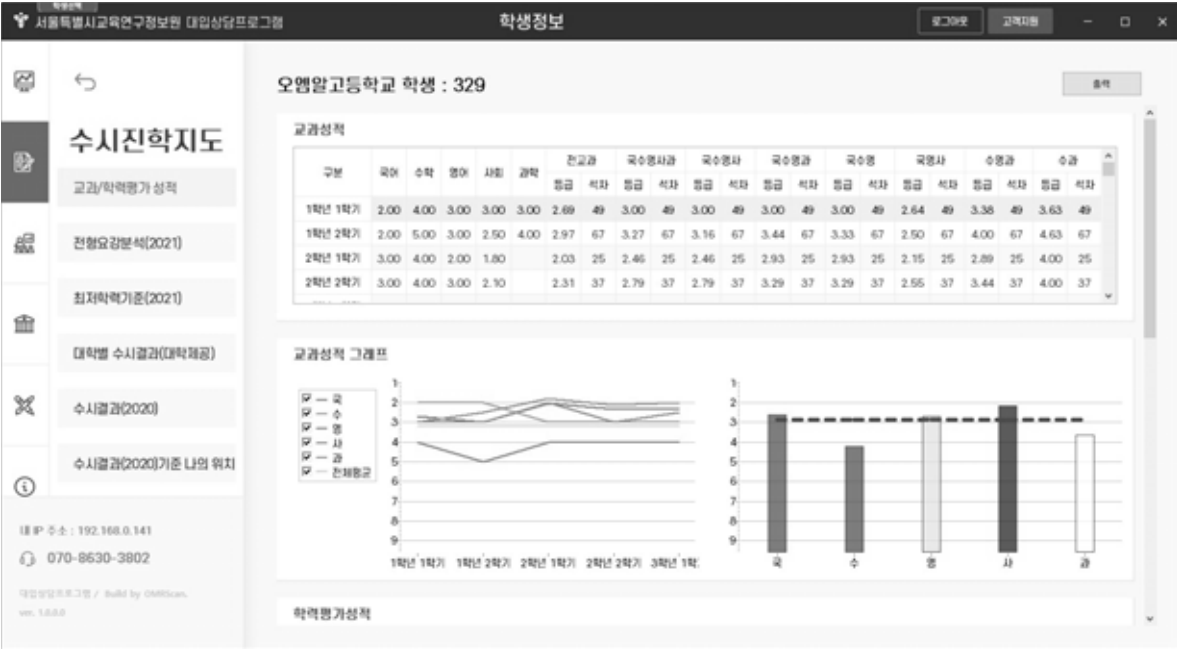
□ 관련 고등학교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제2외국어 I, 한문 I, 철학, 종교학 등
진로 선택	영어권 문화, 제2외국어 II, 한문 II 등

라.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 목표 설정 (4단계)

- 현재의 성적 분석하기 : 목표 대학과 3년 동안의 교육과정 로드맵이 설정된다면 이제 성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의 성적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재 성적에서의 약점은 어디인지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상담프로그램 <수시진학지도 - 교과/학력평가 성적>



입시결과를 통한 목표설정 :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전년도 결과(수시/정시)를 확인 할 수 있다.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여 성적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전년도 결과가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적목표를 세우는데 활용 할 수 있다. 학생에게 막연하게 열심히 하라고 말하기보다 구체적인 성적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훨씬 동기부여가 잘된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상담프로그램 <수시진학지도 - 전년도 수시결과 검색>

전년도 수시결과 검색

지역

대전

계열

자연

대학명

충남대

모집단위

컴퓨터공학부

입시역량

닫기

전형유형	전형명	최저학력요구	결과				평균등급	
			1단계합/불	2단계합/불	합비승위	최종합/불	교과	수능
특기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불	불		불	6.1	6.17

교과성적(평균등급)			비교과 특기사항									
전교과	국문수사	국문수과										
5.99	6.03	6.1										

국문수과(2)			국어			수학			영어			합계영역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256	85.5	6.17		103	53	5	수과	71	12	7				6	과합

선택1				선택2				제2외국어			
과목명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과목명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과목명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물리1	44	31	6								

최저학력기준							전형방법						

마. 성공적인 상담을 위하여

- 단계별 준비 자료와 상담 목표 : 상담을 한 후에 교사나 학생이 기억을 못하거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담의 목표를 잃고 신변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각 단계별로 상담자료를 준비하고 상담목표를 명확히 한 후에 학생과 상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각 단계별 상담목표와 준비자료는 다음과 같다.

Ⅰ 상담단계별 목표와 준비자료 Ⅰ

	상담목표	준비자료
1단계	학생의 흥미,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인식을 고취	진로적성검사결과지 서울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진로심리검사 메뉴 활용
2단계	직업, 흥미를 고려한 구체적인 대학과 학과를 결정	학과정보, 대학별 전공가이드북 서울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 대학진학정보 - 대학/학과정보 메뉴 활용
3단계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3년 선택과목 로드맵 작성	2015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4단계	현재 성적분석과 구체적 성적 목표 만들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상담 프로그램

2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 방법 및 상담 사례

가. 진학 상담 들어가기

- 고1 신입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다. 고2 또한 새 학년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을 동시에 가진다. 이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을 한 학생들에게 담임교사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 진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이미 자신의 관심 대학과 학과의 입학전형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경우도 있다. 고3 담임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나 평소에 진학에 관심이 적었던 담임교사의 경우 이런 학생이나 학부모를 만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1, 고2 담임교사들도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의 내용과 특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청이나 대교협에서 제작한 자료집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기 초 상담에서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 지도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추후 상담도 어려워질 것이다.
- 학기 초 상담은 학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단기간에 학급 전체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의 양과 질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단순히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와 진로 희망을 확인하는 정도로 상담의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진학 상담의 준비운동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학생과의 라포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추후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담의 기본은 내담자의 비밀보장이다.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개인 정보나 상담내용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학생의 동의 없이 동료교사나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상담 일정과 시간은 교사와 학생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년 동안 1~2회 긴 상담보다는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 3~4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때 학생들의 개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상담 준비와 진행, 상담 후의 내용 정리 등을 해 놓아야만 다음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 내용을 누가 기록할 수 있는 개인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 학기 초 상담 실시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상담이 진행된다면 상담의 질은 물론 효율적인 상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공통 질문과 학생 개인별 질문을 사전에 질문지를 통해서 작성해 오도록 지도하여 서로 이야기할 내용에 대해 미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담 질문지 작성 TIP !!!

1.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전공과 대학, 직업
2. 자신의 강점과 약점
3. 교과성적 및 학력평가 성적
4. 수상, 창의적체험활동, 독서 등 비교과 활동 요약
5.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싶은 주제
6. 일주일 자기주도 학습 계획표

나. 진학 상담의 출발점 학생의 '진로 희망'과 '학업 역량' 확인

- 입시 상담 위주의 고3 진학 상담과는 달리 고1, 고2 진학 상담은 '진로 희망'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 고3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나 진학하고 싶은 학과가 없는 학생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학업성취도도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진학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진학 상담의 시작은 학생의 진로와 함께 현재 학업 역량에 대한 확인으로 시작한다. 1학년의 경우 1학기 초에는 교과 성적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월 전국연합학력 평가 성적이 중요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렵겠지만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학생의 학업 역량을 확인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 고1, 고2 모두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월 평가 이후 9월과 11월 두 차례만 진행된다. 고1의 경우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때의 학업역량 확인이므로 중학교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학년의 경우 교과 성적과 학력평가 성적을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학년 때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인 학력평가 성적을 토대로 수능형 시험에 강점이 있는 학생과 교내 평가형 시험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구분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학생이 수시전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담임교사가 꼼꼼하게 관찰하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 학생의 학업역량과 활동역량에 따른 진학상담

- 학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역량이 탁월한 학생도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다면 평가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량이 대학 입시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에게 어떠한 역량과 강점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은 학생 맞춤형 진학 상담의 중요한 요소이다.

- 학업역량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문제 풀이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수행평가나 정기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생이 있다. 물론 수능과 교과 모두 잘하는 학생도 있다. 학업역량은 훌륭하지만, 활동이 부족한 학생도 있다. 반대로 학업역량은 수능과 교과 모두 부족하지만, 활동역량이 뛰어난 학생도 있고, 학업역량과 활동역량 모두 부족하고 무기력한 학생도 있다. 담임교사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 일반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은 교과성적은 뛰어나지만 학력평가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다. 이러한 학생은 대체로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 좀 더 유리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목표와 과제를 설정해 주며 학생의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소통능력 등 학업역량 이외의 다양한 역량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 교과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학력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있다. 대체로 자사고나 특목고에 많은 유형이다. 이 학생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에 적합한 학생이다. 최근 정시전형 모집인원의 확대로 인해 고1, 고2 학생들도 정시전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1, 고2 때 학력평가 성적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재학생만 응시하는 학력평가의 특성상 졸업생이 포함되는 고3 6월, 9월 모의평가나 실제 수능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따라서 먼 미래에 있는 수능을 앞으로 잘 볼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과 기대만 가지고 정시만 준비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 학력평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주로 상위권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적용하는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유형의 학생이 교과 성적과 적절한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원하는 대학 진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생에게 “너는 학력평가 성적이 좋으니 까 정시로 가면 된다.”라는 말보다 “학력평가를 통해 합격 가능성이 예측된 대학보다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우자.”라고 목표를 상향해주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할 것을 독려해 주어야 한다.
- 학력평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는 논술시험에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많다.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면에서 수능의 유형과 논술시험의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고1의 경우 아직 많은 가능성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논술전형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교과성적과 학력평가 성적의 불균형이 심하고 비교과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이 부족한 고2 학생이라면 2학기 때부터는 논술전형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 활동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 소위 요즘 학생들 말로 “인싸”라고 불리는 학생들. 즉 리더십,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나 토론 등에서 적극성을 드러낸 학생을 말한다. 이런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낮을 경우 대학 진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과거 입학사정관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전형이라면 최근의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 활동보다는 교과에 기반을 둔 교과활동 위주의 학업역량 측면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부 기재 항목 및 글자 수를 대폭 줄여 학생부 기록의 편차를 줄이고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요소인 교과 성적과 글자 수가 줄지 않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무리 활동역량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업적인 요소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대학 진학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담임교사들은 이러한 입시 환경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역량과 활동역량 모두 부족하고 진로 목표가 없는 무기력한 학생들도 자주 만나 볼 수 있다. 이들을 지도하기는 무척 어렵고 학생 스스로가 각성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기 전까지 이들을 향한 교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신경을 쓰다보면 교사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자괴감을 호소할 정도이다. 하지만 무기력증에 빠진 학생들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하다보면 그 학생들도 자신만의 꿈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좌절한 경우이거나 진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임교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 현재 고1, 2는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상위권 대학의 입시경쟁은 여전할 수 있지만,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 이하부터 전문대까지의 입시 경쟁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소재 일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교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교과성적 반영은 3학년 1학기까지 전체를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우수한 일부 학기만 반영하거나, 유리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상당수이다. 또한 정시에서도 2과목이나 3과목만 반영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대학 진학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라. 시기별 맞춤형 상담

학기 초 1차 상담이 마무리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시기별 맞춤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1)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상담

- 중간고사 이후 학교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 때 학생들에게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

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행사에 참여해서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목적과 자세이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 능력과 흥미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진로희망과 연결되는 분야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대회와 행사에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자.

2)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상담

-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름 방학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름 방학은 학습 면이나 비교과 활동 면에서 모두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보완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서 보강해야 하므로 학기말 성적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 학기 중에 부족했던 독서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3) 2학기 중간고사 전 상담

-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 후에는 9월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가채점 후 여름방학 동안 이루어진 학습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보통 2학기 중간고사를 치루기까지 상담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학생을 상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다. 그렇다면 가채점 후 성적이 하락한 학생을 우선 상담할 필요가 있다. 여름 방학을 보낸 후인데 성적이 하락하였다면 여름방학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져야 2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다.
- 1학년의 경우 진로희망에 따른 선택교과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 학생의 선택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지 학생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공한 선택과목 안내서와 각 대학에서 발간한 전공가이드북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4) 2학기 중간고사 이후 상담

-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후에는 1학기과 동일한 과정이 진행된다. 각 과목별 등급 컷을 확인하고 기말고사에 더 집중해서 학습해야 할 과목과 보강이 필요한 과목을 확인하고 다시 기말고사까지

의 학습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중간고사 이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11월에 학력평가가 실시된다. 학력평가 실시 후 고1은 1년간의 학업 성취를 확인하고 기말고사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는 시기이다. 일 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도 되었고 학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이므로 학년 초의 결심을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상담

- 2학기 기말고사 후 겨울 방학 전은 학생들에게 쉬는 기간으로 인식되는 때이다. 보통 학기말에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기말 기간에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거나 발표수업을 통해 과목별 세트를 보충할 기회를 주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기말 기간을 낭비하지 말고 교내 활동과 발표수업 등을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언해 주도록 하자.
- 고2의 경우 본격적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12월 말이다. 탐구 과목의 선택과목을 결정하고 최소한 2번 이상의 학습을 하고 3학년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해야 할 공부가 굉장히 많다. 시간 활용을 잘 해서 약점이 되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교사의 지도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학생들의 생활이 느슨해진 이 시기에 마지막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학생부가 오류와 누락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다.
- 고1, 고2 모두 학생부 확인 작업이 학년의 마무리 작업이다. 교사의 생활기록부 작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본인의 1년 간 학교생활 중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항목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년 말 생활기록부 체크 리스트 !!!

1. 수상내역
2. 진로희망-학생의 최종 희망과 일치하는 지 확인
3. 창의적 체험활동-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확인, 셀프 학생부 작성은 금지하도록 지도
4.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본인의 성적과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바탕으로 기록된 내용 확인
5. 음/미/체의 예체능 부분의 기록도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6. 독서활동 상황의 기록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공통영역과 과목별 독서 중복 기재여부 확인

- 고1, 고2 모두 겨울 방학 전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비교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해야 한다. 비교과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전공과 연계해 상담함으로써 학생은 겨울방학 동안 부족한 비교과 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

- 매번 모든 학생들을 다 상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부담감으로 인해 상담이 더 어려워진다.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루어지는 상담도 있지만, 가볍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의 경우들도 많다. 칭찬과 질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관심의 눈과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거두지 말자. 교사의 한 마디 말로도 변화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기억하자.

마. 성적대별 맞춤형 상담

1) 교과성적 1등급 학생

- 교과성적 1등급 학생들은 최상위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 초점을 맞추어 진학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과성적이 1등급 후반을 넘어가게 되면 합격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교과성적 관리와 함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 1등급 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과 평가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으로 구성되는데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른 평가요소보다 학업역량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이 등급 대의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수업 자체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업역량이 심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2) 교과 성적 2~3등급 학생

- 2~3등급 대 학생은 학교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해당하며 서울권 주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유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고의 경우에는 이 성적 대의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교과 성적과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을 준비하여 학교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대입자료집이나 졸업생 합격사례를 통해 현재의 교과 성적이나 학생부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 2~3등급의 비교과 활동이 약한 학생에게는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시험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추천할 수 있다. 서울권 대학 중에서도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거나 교과 성적과 면접시험 또는 교과 성적과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다.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의 합격선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면접시험이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걸려있

는 대학들은 2~3등급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고 있다. 비교과 활동을 최소화하고 교과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에 집중한다면 정시뿐만 아니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에서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3) 교과 성적 4~5등급 학생

- 교과 성적 4~5등급 학생들은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하여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등급 대 학생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학습습관이 잘못되거나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여 교과진도도 따라가지 못하거나, 학원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선행학습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 이러한 학생에게는 주간 학습계획표 작성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예습과 복습을 통해 학교수업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 이 등급 대의 많은 학생들은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교과공부에 소홀하고 비교과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담임교사는 상담을 통해 4~5등급으로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여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후 교과 성적을 3등급 이상으로 향상했을 때 진학 가능한 대학을 제시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가능성이 낮은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교과 면접전형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공부를 병행하여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교과전형을 추천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4) 교과 성적 6~9등급 학생

-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학보다는 진로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희망하는 진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진학을 접근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이나 전문대의 경우 6~7등급의 학생들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여 이 등급의 학생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원율이 저조하여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교과 성적 6~7등급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희망을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면접시험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 교과 성적의 부족함을 면접시험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5) 상담 사례

	주요 교과 성적	학력평가 국영수 성적	학생부 내용	주요 수시 지원 대학	최종 합격
A	1.2등급	2~3등급	교과 세특 평범 수상 경력 우수 비교과 우수	서울대(종합) 연세대(종합) 고려대(종합) 성균관대(종합) 한양대(교과)	한양대
B	1.4등급	1~2등급	학급 및 학생회 임원 교과 세특 탁월 수학 과학 수상 다수 비교과 우수	서울대(종합) 고려대(종합) 연세대(종합) 원광대(종합) 가톨릭관동대(종합)	서울대 고려대 가톨릭관동대
C	2.5등급	1~2등급	교과 세특 우수 수학 과학 수상 전공적합성 낮음	고려대(종합) 한양대(논술) 성균관대(논술) 서울시립대(종합)	고려대
D	3.1등급	2~3등급	교과 세특 우수 경제, 한문, 한국사 경시대회 수상 성적 향상	국민대(종합) 숭실대(종합) 세종대(종합) 단국대(종합)	국민대
E	3.5등급	2~3등급	특별한 내용 없음	성균관대(논술) 서강대(논술) 중앙대(교과) 동국대(논술) 홍익대(교과)	홍익대
F	4.7등급	3~4등급	학급 임원 교과 세특 우수 동아리 활동 우수	서울과기대(종합) 상명대(종합) 한성대(종합) 가톨릭대(종합) 강원대(교과)	가톨릭대 강원대
G	6.8등급	5~8등급	세특 우수 비교과 다양 인성평가 우수	우석대(종합) 경동대(교과) 우송대(종합) 극동대(종합) 원광대(종합)	우석대 우송대 극동대
H	8.2등급	8~9등급	특별한 내용 없음	전문대학교 다수 지원	서정대학 송곡대학

- A학생은 교과 성적은 우수한 편이나 학력평가 성적이 교과 성적만큼 나오지 않는 학생이다. 일반고 상위권 중에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할 때 6번의 기회에서 안정지원으로 지원학과를 낮출 수밖에 없다. 성적에 비해 학생부 기록에 드러난 학업역량도 평범한 수준이었고 면접역량도 부족한 학생이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

능최저학력기준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연세대와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실패했다.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 성적만으로는 합격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심화된 학업역량을 보여주어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이 학생은 결국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는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에 학생부교과전형으로 합격하였다.

- B학생은 교과 성적과 학력평가 모두 우수한 학생이다. 학급 및 학생회 임원활동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였고 수학과 과학 관련 수상이 많고 과목별 세특이 탁월하였다. 원래 의대진학을 희망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교과 성적 때문에 진로희망을 1학년 때에는 의사였지만 이후에는 생명공학연구원과 수의사로 변경하여 기록하였다. 이 학생은 수시전형에서 서울권 대학은 의예과 대신 수의예과 생명공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지방대는 의예과를 지원하였다.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서울대 수의예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가톨릭관동대 의예과에 합격하였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예과 등은 전공적합성을 넓게 해석하며 학업역량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함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C학생은 교과에 비해 학력평가 성적이 높은 학생이다. 학생부 기록은 좋은 편이지만 탁월한 면은 없는 학생이었다. 대체로 국수영사 모두 1등급을 꾸준히 유지 하고 있었고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정시로 갈 수 있다고 예측되는 대학이 더 나은 편이었다. 따라서 정시를 염두에 두고 논술시험과 학종을 준비하였다. 이 학생은 논술시험이나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불합격하였고, 비교적 높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고려대 가정교육과에 학종 일반전형으로 합격하였다. 고려대나 홍익대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성적 2등급 중반 이후의 학생이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학생부 기록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학과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D학생은 교과 성적은 3등급이지만 성적 변화 추이가 상향이고 전공적합성이 높은 학생이다. 수상이 많은 것이 아니지만 희망 전공인 사학과와 관련 있는 한문, 중국어, 한국사 경시대회와 글쓰기 관련 수상이 있었다. 교과 성적 역시 역사 교과와 한문 중국어 등은 모두 1등급이었다. 고등학교의 활동이 반드시 대학의 전공과 일치하거나, 대학 전공을 미리 경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소재 중위권 대학부터는 전공적합성이 높은 학생을 선호한다. 각 학교와 담임교사는 중위권에 해당하는 3등급 대 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진학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프로그램과 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E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활동에 소극적이지만 교과 성적을 포기하지 않고 관리한 3등급 중반의 학생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2~3등급 대이어서 정시에서 수능으로 승부를 보기에 다소 애매하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걸린 논술전형에 중점을 두고 입시를 준비하였다. 논술전형에서는 모두 실패하였지만 의외로 수능 최저가 있는 홍익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중위권 학생들 중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전형과 정시에 몰두하

면서 교과 성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례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 F학생은 교과 성적과 학력평가 성적 모두 4등급대의 평균적인 학생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이다. 1학년 때부터 자신이 특별전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동아리 활동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였다. 과목별 세특과 독서활동, 봉사활동도 열심히 수행하였고 교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4등급 중반 대에서 반등하지 못하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고3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며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5장의 원서를 서울 중하위권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였고, 나머지 1장은 수능 최저가 있는 강원대 학생부교과전형을 선택했다. 그 결과 가톨릭대 행정학과에 학생부종합전형 고른기회전형으로 합격하였고 강원대 인문학부 학생부교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하지 못한 대학들에서도 빠른 순번의 예비번호를 받았다. 학급 학생들 중에 특별전형 대상자가 있는 지 파악하고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대해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 G학생은 6등급 대의 낮은 교과 성적으로 지방 사립대 보건계열(작업치료학과)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사례이다. 6등급대의 성적이지만 고1 때부터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과 함께 전공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학생부 기록에서 보건계열 진로와 관련된 교과 및 담임교사의 인성평가가 매우 인상적인 학생이었다. 경쟁률이 낮은 지방 소재 사립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 목표가 확실한 낮은 등급 대의 적극적인 학생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 H학생은 진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기력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 학생이다. 고3 담임교사와의 진로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요리에 있음을 발견하고 전문대학교 조리학과에 진학한 사례이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기권 전문대학교의 경우 6~7등급까지 최종 합격선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현재 7~8등급의 성적 대를 보이며 무기력한 학생들이 있다면 전문대학교를 안내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 할 필요가 있다.